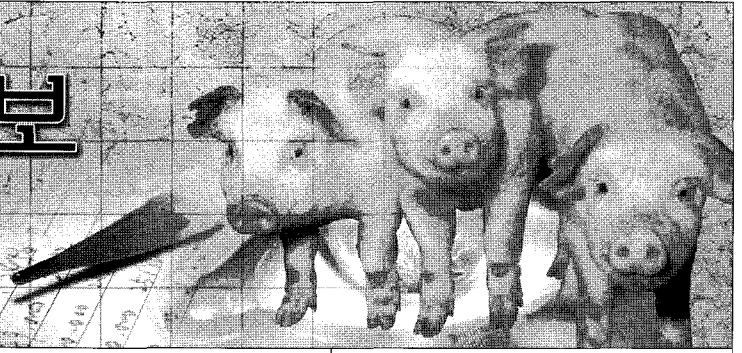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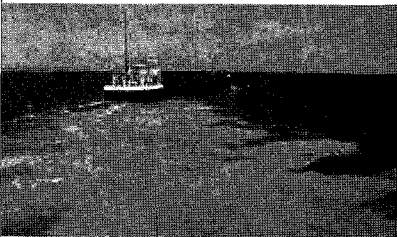


# 축산정보



## 해양배출 감축 정책 양돈농가에 '불똥'

-일부 해양배출업체 가축분뇨 수거비 인상 일방 통보



해양수산부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 조치와 관련 일선 해양배출업체들이 이를 악용, 가격을 인상시켜 가축분뇨 배출량을 감축키로 하는 등 벌써부터 양돈농가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배출량을 지난 2004년도 기준으로 향후 7년간 60%까지 감축하고 이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5.3%를 줄일 계획을 세운 후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는 물론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해양배출물량 감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이들 해양배출업체들이 수거비용을 인상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수부 해양보전과

유정석 과장은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친환경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협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해양배출량 감축 강행과 관련 강력 반발하자 "앞으로 감축방법이나 대책을 농림부 및 양돈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배출량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가축분뇨 해양투기 배출수준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농림부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올해 가축분뇨 해양투기 비율은 작년 수준인 24%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감축계획과 관련 명확한 확정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해양배출업체들의 가축분뇨 수거비 인상은 가뜰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돈농가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J산업은 가축분뇨 수거비용을 오는 6월부터 22% 인상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양돈농가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이다.

## 6~8월 산지가격 27만5천원~28만5천원 전망

-농경연, 9월 사육두수 907만두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은 6~8월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8.8% 상승한 27만5천원~28만5천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9~11월 산지가격은 6.7% 상승한 23만원~24만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6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891만두로 전망하고, 9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대비 0.3% 증가한 907만두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52page 참조>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국회 통과 기대

-입법 공청회서 '소비자의 알 권리' 강조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월 7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식육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석하고 한우농가 1천

400여명이 참석해 육류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 충주에서 돈열 발생 1천두 살 처분

충북 충주에서 지난 1993년 이어 12년 만에 돈열이 발생, 1천여두가 살처분 됐다.

6월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3천60마리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하루 수마리씩 폐사하기 시작,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가운데 수

백마리가 돈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양성판정을 받은 돼지와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1천여두를 14일 모두 살처분, 매몰했다. 한편 이 농장 인근에도 7천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 있으나 조사 결과 전염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시는 발생 농장 인근에 2개소의 방역초소를 설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돈열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

##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기간 5년 유예해야

### - '가축분뇨 해양배출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회협회(회장 노영한)는 6월 15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축산·환경 관련 지방공무원, 양돈농가, 농협중앙회 및 지역축협 종사자,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 해양배출 현황과 전



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은 가축분뇨가 해양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자원화 할 수 있는 "돈"이라는데 공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이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백현태 해양정책과 사무관이 폐기물 해양배출 감소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창수 한국해양연구원 박사는 런던협약 및 해양오염 실태

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등이 논의됐는데,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전진식 부부장은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의 갑작스런 감축은 무리가 된다고 감축량은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넉넉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협회 박창식 이사는 양돈 산업이 제2의 식량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농림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24% 쿼터량 설정과 분뇨의 유기물 활용에 대한 연구, 고액분리기 사용을 원하는 농가에 대한 전적인 지원, 친환경 농업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

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축산경영과 김해녕 사무관은 고액분리기 설치 지원 예산 확보 및 축산국과 식량정책국의 업무 연계, 정확한 시비처방서 제공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해양연구원 정창수 박사는 분뇨 자원화를 법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항체 양성율이 꾸준히 9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충북과 전북지역에서 돈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돈열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관련기관에 당부했다.

**“일요일에 돼지정액 주문하지 마세요”**

-A센터협, 6월부터 시행... 하루 1회만 배송

돼지A센터협의회는 6월 1일부터 일요일 배송도 중단키로 했다. 또한 하루에 1회 이상은 정액을 배송하지 않기로도 결정했다. 협의회는 정액 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고 인건비 부담도 크데다 최근 유가상승과 출혈경쟁으로 A센터의 경영난이 심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돼지정액을 3일 정도 냉장 보관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양돈농가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필요 없이 지출돼 온 운송비를 정액품질 제고에 투자해 궁극적으로는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사료, 사료 전품목 평균 2% 가격 인하**

-양돈사료 등 7월말까지 한시적

(주)농협사료(사장 남경우)가 배합사료 가격을 평균 2% 인하했다.

농협사료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달간 양돈·양계 사

료 등 사료값을 평균 2% 할인 판매한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는 전 품목에 걸쳐 사료값을 평균 2% 인하했다.

농협사료의 이번 가격인하는 '사료가격연동제'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했으며, 인하율은 16%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7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농림부는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학자금 지원규모는 1만3천명을 대상으로 320억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500-2087

**분뇨처리시설 설치 투명성 조사 대폭 '강화'**

-시공·납품업체 통장 입금확인서 제출해야

농림부는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농림부가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일부 농가에서 허위영수증을 정산서류로 제출해 실제 집행액 이상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등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 등 사업자와 시공업체간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대금을 받드시 시공·납품업체의 통장에 계좌 입금 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통장입금 확인서를 제출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인정되나...**

-수입재개 가능성 커져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최종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 동안 두 차례 협의회를 통해 미국의 광우병 예찰프로그램과 특정위험부위(SRM)제거조치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미국 현장조사를 통해 이미 안전성을 인정해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돈육 수입량 '주춤'**

-미국산 돈육 수입 여전히 "최다", 덴마크산 큰 폭 줄어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돼지고기 수입량이 5월 들어 다소 감소했다. 최근 농림부는 5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1만6천496톤으로 지난 4월 2만626톤대비 20% 감소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산 돈육 수입량은 수입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덴마크산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살펴볼 때 미국에서 4천 940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돼 가장 많았으며, 칠레산이 2천489톤, 캐나다산 2천124톤으로 각각 2천톤 이상이 수입되면서 미국의 뒤를 이었다. 또한 프랑스산이 1천556톤, 벨기에산이 1천325톤이 수입됐다. 한편 덴마크산은 지난달 1천144톤이 수입된 것에 반해 5월에는 448톤 수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6천884톤이 수입돼 수입량이 여전히 많았으며, 갈비(2천206톤), 목심(2천637톤), 앞다리(2천397톤) 또한 많은 양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월까지 냉장육 수입이 크게 늘었으며 미국산 냉장육 1천 683톤을 포함한 총 2천223톤이 수입되었다.

### 한·캐나다 FTA 돼지고기 수입 어떻게 되나?

**-부위별 관세인하 폭 조절 등 대안 제시 필요**

한국과 캐나다의 FTA 체결이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주최로 지난달 6일에 개최된 한-캐나다 FTA 공청회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이 축산과 낙농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돼지고기는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목 중 2003년 8.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강문일씨



강문일 검역원장

강문일 신임 검역원장은 1980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3대 원장에 강문일(48) 전남대 수의과학대 학 교수가 선임됐다.

년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87년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수의학박사를 취득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 전남대 수의과대학 학장, 전남대 동물의학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2004년 12.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 2천만 달러 이상이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관세철폐가 이뤄지면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따라서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관세인하 폭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부위별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공급량이 부족한 주요 수입 부위인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허의 폭을 넓히고, 국내공급이 충분한 부위는 양허의 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품목과 차별화가 쉽지 않은 돼지고기와 같은 경우에는 SSG(Special Safe Guard)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미국산 냉장 돈육 수입 "위협"

미국산 냉장 돈육 수입량 급증이 국산 냉장 돈육 소비 감소 영향으로 이어질까 하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4월 축산물수입검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지 수입된 미국산 냉장 돈육은 총 1천356톤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수입된 냉장 돈육 1천837톤의 74%에 해당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 전국 도축장에 도축검사원 100명 배치

도축검사원 100명이 6월 15일 전국 도축장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신규 도축검사원은 도축장의 도축라인에서 지지체 소속 도축검사관(공무수의사)이 수행하는 해체된 내장, 지육, 머리를 직접 검사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돕게 된다.

###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입증품목 '허가'에서 '신고'

**-신약 등 재심사 규정 신설**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시 '허가'를 받던 품목 중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신고제'로 전환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와

같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일 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신약 등에 대한 재 심사 대상·절차 등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인체 용의약품 신약 등은 품목허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안전성 등에 대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물용의약품은 재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심사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전개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발대 식이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 축산 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발대식에 참석한 축산인들은 깨끗한 농장 가꾸기야말로 우리 축산 인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임을 인식 하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을 실천할 것을 결의 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해상 농림부차 관보는 치사를 통해 “깨끗한 축산 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축 산인 스스로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축산

농가의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봉중 축산신문 회장은 “그동안 축산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며, “앞으로 추진될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은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협회(회장 최영열)와 전국 한우협회(회장 남호경), 한국낙농육 우협회(회장 이승호), 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준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축산신문이 주최해 추진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은 모든 축산 농장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질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 구제역 청정국 지위 굳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2일 농림부,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05년도 2/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집단급식소 납품 원산지·위생 위반 81개소 적발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 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9일~20 일 기간 동안 단체급식 납품업체 3 천21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학교, 회사 등 집단급식 소에 납품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을 위반한 81개소 업체를 적 발했다. 이중 38개소는 형사입건하 고 43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 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 발업소 중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이 60개소, 축산물 위생기준 위반 21 개소로 나타났고, 원산지 표시 위 반의 경우 당근 9건, 돼지고기 7건, 쇠고기 5건 등이었다.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신고 :  
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 돈육 재고량 다시 증가세

지난해 7월부터 계속 감소했던 돈육 재고량이 지난달에 이어 4월 도 크게 증가하는 등 다시 증가세 로 반전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회원 사 29개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4월 돼지고 기 조사재고량은 총 7천391톤으로 전월대비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재고량 은 전월대비 18.2%나 증가했었으 며, 4월 재고량은 전년 동월대비 32.9%나 증가한 양을 보였다.

부위별로는 전 부위에서 증가세 를 보였으며, 특히 전지와 후지, 갈 비 부위 재고량이 다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는 조사 재고량 627.9톤으로 전월대비 30.3% 증가하고, 후지는 856.1톤 으로 전월대비 20%, 갈비는 984.1 톤으로 전월대비 54.7%나 증가했 다. 또한 안심은 전월대비 6.7%, 등심은 3.4%, 삼겹살 9.6%, 목등 심 4% 각각 늘어났다.

## '축산발전기금' 준치 확정

-현행 57개 기금 50개로 축소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의 준치가 최종 확정됐다.

그 동안 축산업계는 축발기금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 국회의원 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강력하게 축발기금 폐지 반대 활동을 전개해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를 폐지·이관·통합해 11개로 축소하고, 57개인 기금도 50개로 정비하는 등의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당초 폐지대상이었던 축발기금 등 3개 기금은 존치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처럼 확정된 정비방안에 따라 올해 안에 필요한 법률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2006년에 편성하는 2007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 '벌침' 이용한 친환경 축산 점점 확산

벌침이 돼지와 소에 발생하는 간단한 염증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벌침이 가진 천연 독을 가축질병 예방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사천, 산청, 거창, 함천 등 도내 4개시군 지역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봉독이 함유하고 있는 생리활성물질을 가축사육에 적용할 경우 질병예방 등에 따른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꿀벌 생봉독이용 안전축산물 시범사업이 지난 2003년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80여 축산농가에서 성과를 거둬, 인근농가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강원양돈조합, 통합농협 발대식 개최

강원양돈조합(조합장 고동수)은 지난 5월 21일 강릉시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관내 축협장을 비롯한 이창림제주양돈, 송건섭대중앙양돈조합장, 조합원 및 임직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통합농협 발대식 및 조합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강원양돈조합은 지난 2004년 10월 20일 강원양돈조합과 영동양돈조합이 합병에 관한 기본 협정서를 체결하고 12월 2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393명중 352명이 투표에 참여, 322명의 조합원이 찬성, 92%의 찬성율로 지난 2005년 3월 10일 강원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통합 강원양돈조합으로 합병인가를 받아 3월 21일 합병업무를 시작하고 이날 통합 발대식을 갖게 됐다.

## 복제동물 조기사망원인 첫 규명

국내 연구팀에 의해 복제동물이

정상적인 동물보다 빨리 죽는 원인이 처음으로 규명됐다.

경상대 축산과학부 김진회 교수팀은 한양대의대 백승삼 교수, 생명공학연구원 한용만 박사, 대구 가톨릭대 김태완 교수와 공동으로 체세포 복제 방식에 의해 태어난 복제동물이 조기 사망하는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 PED 현장 검사 바로 가능

-검역원, 신속간이진단키트 개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일선 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을 설사변한 방울만으로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신속간이진단키트'를 개발했다.

## 돼지고기 부위명 '갈비삼겹' 추가

농림부는 지난 6월 16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개정 고시하고, 돼지고기 부위명에 '갈비삼겹'을 추가했다.

## 밀도살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1인당 지급 총액 제한, 5월 20일부터 시행

농림부는 축산식품의 후진국형 범죤인 가축의 밀도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그 동안 지급해 오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해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동**